

수출규제 관련 일일동향(8.30~9.2)

1. 불화수소(에칭가스) 수출허가 관련

□ [일본 정부 동향]¹⁾

- 세코(世耕)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불화수소의 대한민국 수출이 지난 7월 대폭 감소(전월대비 80% 이상 감소)한 것과 관련하여 “일시적으로 수출량이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, 상정했던 범위 이내(의 감소)다”라고 하였음.
- o 또한 세코 장관은 “(수출 신청이 들어온) 불화수소가 군사전용의 우려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허가를 낼 방침”이라고 하면서 “새로 허가를 얻은 기업이 수출을 개시하면 수출량이 회복될 것”이라고도 함.

□ [일본 언론 동향]²⁾

- 일본 언론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가 개별 수출허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하면서,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앞으로도 수출규제 조치의 철회를 요구할 생각이기 때문에 이번 (불화수소의) 수출허가가 한일관계의 긴장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전망함.

2. 한일 관광장관 회담 관련

□ [동향]

- 8월 30일 인천에서 한중일 관광 담당 장관이 회담, 3국간에 활발한 관광교류를 진행하는 것에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함.
- o 공동성명의 내용은 젊은 세대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것 등을 통해 3국이 활발한 관광교류를 추진한다는 것임.³⁾

1) 「韓国向けの「フッ化水素」輸出減少 経産相 「想定の範囲」」 『NHK NEWS WEBS』 (2019. 8. 30).

2) 「フッ化水素輸出許可 韓国向け、管理厳格化後初」 『産経新聞』 (2019. 8. 31).

3) 「日中韓 観光大臣会合 交流推進の共同宣言」 NHK NEWS WEBS』 (2019. 8. 31).

- 한편 일본의 이시이(石井) 국토교통성 장관은 3국 회담 이전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가짐.⁴⁾

- o 이시이 장관은 회담 후 “한일 관광당국자 간에 상호 교류는 상호 이해의 기반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에 (양국이) 일치했다” 고 발언함.

- * 단, 한국정부가 요구하는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의 철회 등 관광 이외의 분야에 대한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음.

3. 한일 대화 관련

□ [동향]⁵⁾

- 일본상공회의소의 미무라(三村) 회장은 “일본의 조치가 한국에 금수조치로 받아들여져 큰 반일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매우 유감” 이라고 하면서, “재계도 포함하여 대화를 지속하는 등 시간을 들여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” 고 주장함.

4. 한일 방위 교류 관련

□ [일본 언론 동향]⁶⁾

- 일본 언론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한일 방위(군사)간 교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도함(日本經濟新聞).
- 일례로 8월 말 예정이었던 한국 육군과 자위대 육군의 교류사업은 한국 측 의향으로 중지되었으며, 10월의 해군 관함식도 한국의 참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도함.
- o 동 행사는 한국 육군과 자위대 육군의 교류 사업은 양 부대의 신뢰관계를 높이기 위해, 매년 1회씩 간부 후보생이 양 국가를 왕래하며 교류하고 있음.

4) 「日中韓、交流促進を合意 観光大臣会合」 『朝日新聞』 (2019. 8. 31).

5) 「日韓関係 日商会頭「経済界も含めて対話継続を」」 『NHK NEWS WEBS』 (2019. 8. 30).

6) 「日韓、防衛交流に影、軍事協定破棄、安保での亀裂懸念。」 『日本經濟新聞』 (2019. 9. 1).